

산림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산림분야 회의(EGILAT)에서 불법 벌채 방지 위한 국제협력 강화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경상북도 경주시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산하의 ‘불법 벌채 및 관련 교역 전문가 회의(EGILAT)’에 참석해 불법 벌채 방지 및 합법 목재 교역 촉진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오는 10월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지난 24일부터 다음달인 3월 9일까지 ‘제1차 고위 관리회의(SOM1) 및 산하회의’를 통해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핵심 의제를 사전에 조율하고 무역, 혁신, 에너지, 산림분야의 실무그룹 활동을 점검한다.

산림청은 이날 ‘불법 벌채 및 관련 교역 전문가 회의(EGILAT)’에 참석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개발 중인 목재 수종 식별 기술과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21개 회원국과 불법 벌채 감시 및 합법 목재 교역 촉진 방안,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로 발생하는 탄소를 상쇄하고 지속 가능한 행사운영을 위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한편,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활용한 나무 심기와 산림 복원 등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불법 벌채 방지와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은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필수 과제이다”라며 “한국의 산림 보호 정책 및 국제 협력 성과를 널리 알려 전 세계 산림 보호에 기여하고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제산림협력관실	책임자	과 장	노용석 (042-481-1830)
	임업수출교역팀	담당자	사무관	임석승 (042-481-4085)